

**시편: 114장**

후렴: (주는 바위가 샘이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고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거슬러 물러갔나니라  
산들은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찜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은 어찜인고  
너희 산들아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은 어찜인고

땅이여 소스라쳐라 주의 면전에서  
야곱의 하나님 그 면전에서  
주께서 반석을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바위가 샘이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솟게 하셨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5 장 1~1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중보기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십시오.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멘.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15장

후렴: (주여,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그 누구이리까)

주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속에 진실을 품은 사람이나이다

그 혀로 참소하거나 그 벅에게 행악지 않으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않는 사람이나이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나이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않으며  
높은 이자로 돈놀이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로다  
또한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요동치 않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그 누구이리까)

**성경말씀:** 요한복음 6 장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노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걸 사람은 늙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취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달이 지구를 따라다니듯이, 병이 젊은 소화 데레사 성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무르익어 '죽음'이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소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성스런 임을 사랑하던 소화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임의 사랑 자체였습니다.  
소화의 마음에는 우리들이 '죽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임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오! 사랑의 만능이여!

오! 사랑의 왕이여!

오! 영원한 안식의 임이여!

오! 영원한 평화의 임이여!

오! 영원한 생명을 받으소서!"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119장 97~104절

후렴: (주의 말씀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법을 묵상하기 때문이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현명하니  
주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니다

온갖 악한 길에서 제 발길을 돌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함이니다  
내가 주의 법규에서 어긋나지 않으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신 까닭이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1 장 15~17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중보기도:**

교회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저의 책임과 의무를 알려 주십시오.

감당케 합소서.  
직책 즉, 임무를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완수하지 못하면 인격에 결함이 생기겠습니다.  
인격완성을 주소서! 사람 노릇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겠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시편:** 27장 7~14절

후렴: (생명의 땅에서 주의 복을 나는 누리리라 믿나이다)

주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바로 주를 생각하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고 있나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는 나를 받아 주시나이다

주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때문에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있으니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오직 주만 바랄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를 바랄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생명의 땅에서 주의 복을 나는 누리리라 믿나이다)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1 장 6~10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노인들을 어머니처럼 모시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공로를 쌓는 것이요,  
친구의 자녀 돌보는 것이 친구를 대접하는 도리인가 봅니다.  
사업이 아니요, 주님의 항상 닮는 일입니다.

---

**시편:** 32장

후렴: (주를 바라는 이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 복이 있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고  
주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녹아났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고  
이처럼 주께 내 죄를 아뢰었나이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찌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찌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하지 말며  
분별없는 노새 같이 되지 말찌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도다  
너희 의인들아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 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바라는 이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 장 7~1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겸손한 그 마음이 곧 은총입니다.  
그 겸손 속에 은총이 깃들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잉태된 탯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마음속 깊이깊이 낮아질 때 저는 공허이요, 가난한 마음이요, 무(無)이며 그 자리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 겸손한 영 속에 평화의 영이신 예수님이 계시어서 그렇게 평안하여짐을 성모송을 외울 때에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46장**

후렴: (너희는 침묵하여 내가 하나님인줄 알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설령 땅이 뒤흔들리고 산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든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않으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흰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주께서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주의 행적을 불찌어다  
땅에서 이룩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주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리니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너희는 침묵하여 내가 하나님인줄 알라)

**성경말씀: 이사야 53 장 1~5**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예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은총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것을 주신 덕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만에 한 칸도 없는 것인데 무無의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142장

후렴: (이 몸이 피할 곳은 오직 주시니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몫이십니다)

내가 소리 내어 주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 줄 사람이 없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오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오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몸이 피할 곳은 오직 주시니 생명의 나라에서 나의 몫이십니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2 장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요한복음 12장 25절)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살고자 하고, 껍을 부리고 순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만 죽습니다.

자기만 희생이 되고, 자기 영혼만 죽습니다.

역사의 한중간에서 우리들은 선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참 일을 맡기고 싶어서 불러낸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시편: 115장**

후렴: (이스라엘아 주를 신뢰하여라 주는 도우시며 방패이시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을 영광되게 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을 놔두십니까  
그들 하나님은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나이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같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주를 경외하는 너희는 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 모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  
하늘은 주의 하늘이며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네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주를 신뢰하여라 주는 도우시며 방패이시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5 장 1~13**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 중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검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비밀은 평화입니다.  
임께서 친히 못 박히셨기에 우주가 저토록 고요합니다.  
십자가는 고요함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아無我입니다.  
도道는 십자가입니다.  
진리는 무아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아상我相을 버린다 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안식이, 기쁨이, 사랑이 있습니다.  
오! 바로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

**시편:** 45장

후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른손이 찬란한 위세를 떨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찌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찌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찌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되어 가는도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의 뒤를 이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성경말씀:** 잠언 3 장 5~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네 가슴의 슬픈 소리를 임께 다 아뢰십시오.  
임은 만물의 세포가 우는 아픈 가슴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 깊은 가슴속의 비밀을 들어주시는 어머니입니다.  
성스런 임께서 제 가슴 아픈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 주시는 그것으로도 제 아픔이 곧 치료가 됩니다.

---

**시편:** 49장 13~20절

후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도다)

그들의 이 행위는 그들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그들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이나 소가 끌려가 죽고 말듯이  
죽음에 몰려 저승으로 곧장 가리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리다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주시리라  
올바른 자가 그들을 다스릴지니  
아침에 그 모습 사라지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찌어다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으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찌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짐승 같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도다)

**성경말씀:** 히브리서 10 장 19~25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피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사랑이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만이 사람을 유익케하고, 사랑만이 사람을 풍성케 하옵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시편:** 119장 105~112절

후렴: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내가 맹세하고 실천하려하나니  
주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험에 놓여 있으니  
주의 법은 잊지 않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니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유산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성경말씀:** 시편 109 장 30~31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오! 어머니의 사랑의 신비여! 오! 어머니를 만드신 하느님의 사랑이여! 지구가 어머니라면 숲은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산소가 어머니 가슴에서 흘러내립니다.

동물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놓는 신비여!

중생은 사랑을 먹고 미움을 만들고 성인은 미움을 먹고 사랑을 만듭니다.  
사람이 산소를 마셔야 생명이 산다면 산소를 만드는 풀과 나무는 동물을 살리는 젖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

**시편:** 72장 9~20절

후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리로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 주는 살아 계시고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로다  
그를 위한 기도가 언제나 들려지고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산등성이에까지 넘치리다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리니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리로다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6 장 19~21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중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에 때문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제가 제게 속아 살아왔나이다.

제가 저를 꾸짖고 제가 저를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의 회개를 요청하는 것보다, 제 회개가 긴급한 일인 줄 알지니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시편:** 121장

후렴: (내 구원은 오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한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런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에게서로다

주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주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으리로다

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께서 나가나 들거나 너를 지켜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구원은 오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한테서)

**성경말씀:** 이사야 53 장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중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율법의 눈에서 이제는 은혜의 눈을 뜨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은혜가 보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

**시편: 16장**

후렴: (주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나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나는 결코 그 이름도 부르지 않으리로다  
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주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가르치도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리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요동치 않으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편안히 쉬리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두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나이다)

**성경말씀: 사도행전 26 장 17-18**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중보기도:**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6년 11월 15일 일요일

## 시편: 111장

후렴: (주의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계명은 모두가 변함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유산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주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주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계명은 모두가 변함없도다)

## 성경말씀: 마태복음 25 장 19~21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니라.

##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도 되고 순결도 지키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의 작음은 사랑입니다.  
겉질은 좁고 고생스럽고 약합니다.  
그러나 속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행복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시편:** 124장

후렴: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나이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하였겠느냐  
주께서 우리 편이 않으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 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니라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니라  
우리를 그들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신 분이시라  
우리는 주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 영혼이 새와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올무는 끊어지고 우리는 살아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나이다)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4 장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중보기도:**

인자하신 주님, 온갖 불의와 혼란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복음을 충실히 실천하고 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11. 자아를 벗어나

우리 영혼은  
옛적 자아에서  
이탈 해야 합니다.  
자기는 없고  
하느님 사랑이  
온통 영혼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하느님 생명이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

**시편:** 131장

후렴: (이스라엘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만 바라보아라)

주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나이다  
나는 거창한 일들을 따라 나서지 않으며  
주제넘은 일들을 따라 나서지 않나이다

오히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여  
젖은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도다  
내 중심이 젖은 아이와 같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만 바라보아라)

**성경말씀:** 요한1서 1 장 5~7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살피소서. 소외된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동광원에 있는 양들의 영혼도 재산도 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모두의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자기의 정과 욕의 탓이요,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는 탓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튼 자만심과 재물의 애착에서 오는 번민입니다.

곧 자기를 못 버린 탓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탓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탓입니다.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는 자고심(自高心)의 탓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

**시편: 127장**

후렴: (주께서 도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리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 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식은 주의 주신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도성을 지켜 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성경말씀: 야고보서 3 장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중보기도:**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준 꽃이라면 그 꽃이 곧 사랑의 실재입니다.  
임은 떠났어도 꽃이 있는 동산이 곧 임 계신 곳입니다.  
임이 보내신 분이 사랑이 아니고 꽃이라면 그 꽃이 임이 되고 그 꽃을 피게 하신 분이 아버지 사랑의 실재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119장 65~72절

후렴: (주여,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제게 가르치소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잘해 주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으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으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그들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에게는 주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 좋나이다  
수많은 금과 은보다 좋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제게 가르치소서)

**성경말씀:** 사사기 5 장 31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중보기도:**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 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한 사람이 평안하면 온 세상이 평안하고, 한 사람이 불안하면 온 천하가 불안해집니다.  
나 하나가 거역하면 만물이 슬퍼하고, 나 하나가 순종하면 천하 만물이 기뻐합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135장 13~21절

후렴: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노래하여라)

주여, 주의 이름과 이 영원하시나이다  
주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이다

그것을 만든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주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주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주를 송축하라  
주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주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주여,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찌어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노래하여라)

**성경말씀:** 마가복음 2 장 16~17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열두 제자가 머리 다툼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높다는 것은 뱀입니다.  
하느님을 제쳐 놓고 아담과 하와가 왕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서운 마귀입니다.  
우리들은 성인 성녀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시편: 116장**

후렴: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 채워드리리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로다  
귀하도다 주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여  
주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을찌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주의 궁전 안뜰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 채워드리리다)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2 장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써 뛰어난 근면성과 절약 정신으로 얻은 부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용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나는 길이다.’ 이 말씀은 생명의 길, 사랑의 길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고 참됨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신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란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질 때 순명할 수 있습니다.

---

**시편: 112장**

후렴: (인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은 어둠 속의 빛처럼 빛나리다)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며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리니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주께서 영원토록 요동치 않나니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않나니  
주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 원수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주께서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은 어둠 속의 빛처럼 빛나리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5 장 37~40**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혈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중보기도:**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무슨 조직보다도 그 조직을 잘 운영할 참 사람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을 유익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재 양성이 급선무입니다.  
인재 양성을 할만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의대로만 할 사람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시편:** 119장 89~96절

후렴: (주여, 이 몸은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영원하며  
하늘에 굳게 든든히 세워졌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으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았나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으리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법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이 몸은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하소서)

**성경말씀:** 야고보서 4 장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중보기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술한 난관에 부딪혀 패배주의와 상처로 가득 찬 청년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가 제 안에 계심으로 제가 살아 있나이다.  
주께로 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옵고, 주와 같이 되는 것이 저의 희망과 즐거움이옵나이다.



**시편:** 138장

후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시작하신 일 주께서 이루시리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다  
주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찌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주께서 이루시리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시작하신 일 주께서 이루시리다)

**성경말씀:** 이사야 44 장 21~23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중보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잘 활성화되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자기 자유의지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과 완전히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영적 가난입니다.  
거룩한 가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망, 자기 애정, 자기 의지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2026년 11월 25일 수요일

**시편:** 139장 13~24절

후렴: (나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누구나 그 행실에 따라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라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찌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녕히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찌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않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누구나 그 행실에 따라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성경말씀:** 마가복음 1 장 16~18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중보기도:**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오! 성스런 먼지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로 귀일歸一 되는 겸손한 먼지여, 주님의 몸이 가장 작은 먼지가 아니었습니까?  
그 먼지는 겸손이요(마태복음 11장 29절 참조), 그 먼지는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곧 빛이요, 그 빛은 곧 진리요, 그 진리는 곧 생명이요, 평화를 찾아갈 영혼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 영혼의 가야 할 길이어!.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

**시편:** 144장 10~15절

후렴: (주는 영원히 진실하시나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영원히 진실하시나이다)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1 장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중보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여기 동광원에 계신 목적은 자기를 이기자는 것뿐이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밤낮 편치 못할 것입니다. 늘 주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여야 기쁨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쁨은 허사이므로 만족치 않을 것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시편:** 145장 14~21절

후렴: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시며  
주의 통치하심은 무궁토록 거하시리다  
주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7 장 20~2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한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제 본심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심 찾는 것만이 제일임을 알겠나이다.  
본심 찾기 전에는 누구라고 사귄 수 없겠습니다.  
죽일 놈은 저 뿐인가 합니다.

---

**시편:** 119장 169~176절

후렴: (주여, 길 잃은 양처럼 헤매나니 이 종을 찾아주소서)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찬송을 쏟아낼 것이라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것이라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잃은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 함이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길 잃은 양처럼 헤매나니 이 종을 찾아주소서)

**성경말씀:** 에스겔 18 장 31~32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중보기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보좌에서는 늘 '삶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고일 웅덩이를 만들어 주소서.

복천(福泉)이 되어서이다.

복음밭에 물 대주는 물이 되고 다른 대로 흘러 보내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돌리는 밭이 되어서이다.

2026년 11월 29일 일요일  
(대림절)

**시편:** 63장

후렴: (주여,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주를 그리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는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리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리다

칼의 세력에 붙인바 되어 여우의 밥이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주를 그리워하나이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3 장 33~37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주님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은 것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 주시므로 이 시간까지 성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  
(대림절)

## 시편: 5장

후렴: (주의 크신 인자하심 안에서 나는 새 힘이 솟나이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이 속삭임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부터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나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는 주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너무도 크시니  
나는 그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리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 아로새기고  
성전을 향하여 꿇어 엎드리나이다

주여, 주의 정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 심중이 심히 악하나이다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 외치리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감싸 주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크신 인자하심 안에서 나는 새 힘이 솟나이다)

## 성경말씀: 마태복음 4 장 18~20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지옥이 어디인고, 바로 하나님 사랑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끼리의 사랑도 본래 인간 자체에 무슨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 친구간의 사랑도 그 근원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